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8) "내 탓이오"의 작지만 위대한 각성

지난호 마지막에 소개한 혜능 스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다듬어 봅니다. "산 속에 금이 묻혀 있다. 그러나 산은 금을 몰라보고, 금 또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산인 줄 모른다. 의식이나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 이 보물이 귀한 것을 안다. 그래서 전문가를 시켜 산을 뚫고 원광을 캐낸다. 그것을 불에 녹여 찌꺼기를 떨어내어 순금을 얻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큰 부자가 되어 오랜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귀한 불성이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사정도 이와 같다. 이를테면 덧없는 몸이 세계(世界)라면, 나와 남을 갈라보는 뿌리 깊은 습관(我)은 산(山)이라 할 수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번뇌는 금을 덮고 있는 광석찌꺼기에 비유된다. 불성은 금이고, 그것을 되찾는 반야지혜는 전문제련사(工匠)이며, 정진(精進)은 그 광석찌꺼기를 뚫고 깨는 일에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몸이라는 세계(世界) 속에 인아(人我)의 산이 있고, 인아(人我)의 산 속에 번뇌의 광석찌꺼기가 있다. 번뇌의 광석찌꺼기 속에 그러나 불성의 보물이 숨어 있고, 그

불성의 보물 가운데 반야 지혜의 제련사가 있다. 지혜의 제련사를 시켜 인아의 산을 깨고 뚫어, 거기서 번뇌 광석을 확인하고 이를 깨달음의 불로 제련하면, 거기 금강처럼 빛나고 영원한 불성(金剛佛性)이 분명히 명정(明淨)하게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경의 이름에 금강을 붙였다." 비유가 짙실하고 친절합니다. 인간의 몸이 세계라면, 그 세계의 중심에 큰 산이, 즉 '나와 남을 갈라보는' 뿌리 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뇌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고요. 행복의 중심인 불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은, 지혜의 망치로 그 인아(人我)의 산을 깨고, 깨달음의 불로 그 번뇌를 녹여 없애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본래 모습인 금강의 불성에 승용을 띄워주고, 그 활동을 자유롭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불성과 무지, 그리고 반야의 삼각 구조
불교의 프로젝트는 '불성', '번뇌와 무지', 그리고 '반야'의 삼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현

대적으로 말하자면, 불성은 '목표', 번뇌와 무지는 '문제', 반야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이 세 축을 각기 본각(本覺), 불각(不覺), 시각(始覺)으로 설정하여 불교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삼각 구조에서 관건은 '문제'입니다. 이를 좀 부연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바세계의 삶은 비유하자면 파도가 일고 흩날리는 뒤섞이는 혼란과 고통이라 하겠는데, 이 고

상을 불명합니다. 부하는 상사가 성격이 괴팍하고 공적을 가로챈다고 불평이고, 상사는 부하들이 무능하고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에 빠져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고 한숨쉬고, 남편은 집 나서면 전쟁터인 이 험한 세상을 힘겹게 건너는 자신을 몰라준다고 술잔을 기울입니다. 불교는 밖을 향한 습관적 첫소리를 그만 그치고, 문제를 자신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부름 주고, 다른 사람들과 주변 여건을 비난하는 권리를 줍니다. 이 합리화 과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기에 거의 '의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이 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듯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에 더 깊이 회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세의 큰 스님들 가운데도 '내부를 향한 깊은 자책'이 큰 서원과 발심으로 이어진 분도

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계에 기여했으며, 전쟁, 분열, 추악함, 그리고 탐욕으로 얼룩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부이다." (크리슈나무르티, 정현종 역, <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21쪽)

둘러 보십시오. 나만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도 또한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때 대부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반응하지만, 그래서 싸움이 그칠 날 없지만, 그러나 남이 하는 손가락질과 비난이 정말 전적으로 틀렸을까요. 혹시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편리한 이중잣대를 무의식적으로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내 잣대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생생한 현실 앞에서 옳고 그르다는 이분법이 도기 낯설도록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각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회계>를 한번 독송해 보세요.

아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계유무시탐진치(偕由無始貪瞋癡)
중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야금계참회(一切我今皆懺悔)

그동안 내가 지어온 그 수많은 악업은 나도 모르게 뿌리박힌 삼독, 그 탐욕과 질투와 어리석음 때문이었어라. 앞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낳은 그 모든 잘못을 나에게 깊이 참회하오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어떻게든나고 귀합니다.

시작은 "내 탓이오"의 참회로부터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바로 그 '작은 전향', 조고각하(照顧脚下)로부터 불교가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회향(廻向)을 주저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큰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아니기에, 그 당당함이 스스로에게는 면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정말 죄가 없을까요. 혹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늘 문제삼는 그 혼란과 분열, 비참과 부조리를 몰고 온 장본인은 아닐까요.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지난 삶의 공격성,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편견과 관념으로 인해 발발하기 때문

주장사파라...

31 만해 스님의 '큰 사자'



조태호

만해의 신강화(禪講話)를 듣고 남들은 청년들이 찾아왔다. 만해 자네한테 하룻밤 신세. 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왔다가 이리 오게. 자넨 밤새 냉골에서 좌선 했구나. 너희들이 흥룡한사람 되어야지. 왜 남의 얘기를 들으러 다녀 남의 정신골려 다니지 말고 내 정신갖 살아! 조선 명명머리가 하나의 감옥인데. 불뎌 방에서 어찌 편안히 산단 말이오. 만해의 거실을 찾았다. 호통만 치지 말고 주장사로 한대 갈기지. 신기해... 웬가 석가모니가 무슨 책이 있어 49년간 설법을 했던가. 머리와 가슴에서 우박같이 줄줄줄... 곱은 막대기로 싸우지만 사자는 호령만 하는법 새끼사자는 호령... 큰사자는 그림자만 보이지.

만해 스님(1879-1944): 충남 홍성 생. 27세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에게 출가. 일본의 신문명을 사찰하고 돌아와 독립운동, 청년불교운동에 매진. 문학적 업적도 크게 남겼다.

네티즌 교리문답

'무엇이 中道の 실천인가?'

Q 불교는 치우침이 없는 중도(中道)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도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D 학생)

답1: 평상심이 중도입니다. 평상심은 무슨 일이든 집착이 없는 마음입니다. 고로 중도행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행에 집착을 하지 않는 행이라면 중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심)

답2: 경전에 이르되 "수행자는 무릇 앙국단을 피해야 한다. 지나친 고행도 잘못된 것이요, 지나친 방일도 잘못된 길이니 오직 중도로서 행할 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는 몸을 혹사시키는 고행이나 방만한 수행을 하지 말고 적당한 식사, 적당한 잠, 부지런한 노력 등을 하라는 뜻으로 압니다. (세등)

답3: 반야부 경전에서 주장한 무주(無住)나 무상(無相) 등의 실천을 용수(宗壽) 등에서 중도의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막연했습니다. 이러한 인도불교의 한계를 벗어나 반야사상과 불성사상을 완전히 체득한 남종선의 선구자 하택신화는 중도의 실천을 '마음에 번뇌망념이 없는 무념(無念)의 실천으로 제시해 쉽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선에서는 중도의 실천을 무심(無心)으로 제시해 반야(반야)의 실천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생활의 종교로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無心)은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

답4: 중도를 해석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말로 하자면 불교는 중도로서 중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적인 측면의 중도로서 제시되는 것이 8성도입니다. 그러나 중도의 실천은 8성도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팔성도의 처음인 정견(正見)은 무엇인가? 그것은 4성제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4성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겠지요. 불교의 교리는 이렇게 물리고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4성제의 도제(進階) 속에 팔성도가 들어있고요. 결론적으로 중도란 정견을 세우는 것이요, 8성도를 실천하는 것이요, 4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후박)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1. 원통 안에 세계의 거울을 거울면이 안쪽이 향하도록 끼워 넣고 한쪽은 막은 원구로 색종이 등을 넣고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음 2.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4자성어 3. 후방(後方)의 반대말 4. 사체를 자연에 방치하는 장법(葬法) 5. 배로 숨쉬는 방법 6. 조계종 제7교구 본사로 총남 예산에 있음.

세로 1. 만해 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축전 7.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8. 집으로 돌아옴 9. 불도를 방해하는 온갖 악한 일들을 비유하는 말 10. 위도 30-65도 사이의 중위도 지방에서 일 년 내내 서쪽으로 치우쳐 부는 바람 11. 총탄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옷 12. 장씨 셋째 아들과 이씨 넷째 아들이란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 13. 4신 중 하나로 서쪽을 관할 14. 식사한 이후 15. 물을 빨아들임.